

'노인 빈곤' 방치하면 한국의 내일은 없다

하류노인이 온다 후지타 다카노리 지음



'안락한 노후 생활!' 20대 후반 에 사회생활을 시 작한 직장인이 중 년을 지나 퇴직하 기까지 30여 년간 하루하루의 노동 을 견디며 꿈꾸는

'종착역'이다. 누구든지 개인의 명예와 부 등 사회적인 성공을 거둠은 물론 자 녀의 학업과 결혼 등을 마친 후 노년에 는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듯 유유자적 하며 은퇴생활을 즐기고 싶은 것이 인지 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그러나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의 현실 은 어떠한가? 핵(核)가족화와 질병, 부 족한 노후 생활자금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은 기대와 달리 급락하기 쉽다. 매체 에서는 연일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보도되곤 한다.

최근 출간된 '2020 하류(下流)노인이 온다'는 현재 600만~700만명으로 추정 되는 일본의 '하류노인'의 실상과 사회 적 배경, 빈곤에 대한 자기방어책을 제 시한다. 흔히 '일본의 오늘은 한국의 내 일'이라 말하듯이 한국 역시 수년내 도 래할 고령사회의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저자인 후지타 다카노리 NPO(비영 리단체) 법인 홋토플러스 대표는 하류노 인을 '생활보호기준(한국의 기초생활 수 급에 해당하는 기준)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고령자'로 정의했다. 하류노인의 특징은



노인층의 빈곤과 격차해소를 위해서 노인층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인 사회보장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김대중 컨벤 선센터에서 열린 '광주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는 노인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3무(無)이다. 수입이 거의 없고, 충분한 저축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

하류노인 문제는 한 개인의 불행에 그 치지 않고 사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 다. 부모가 하류노인이 되면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파산하며, 고령자를 존경하 지 않는 가치관의 붕괴를 초래하며, 젊 은 층의 소비가 침체되고, 저출산을 가 속화시키는 간접적 요인이 된다. 그래서 하류노인 문제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 든 세대와 관계되는 사회문제이다.

'고령대국'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하 류노인' 문제를 설명하고 있지만 수년 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상황이다. 201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노

인의 절대 다수는 이미 충분히 가난하 다. '상대빈곤율'이 49.3%로 OECD(경 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4년 후인 2020 년이면 700만명 규모인 '베이비부머'의 맏형 격인 1955년생이 65세로 진입하 며 현업에서 은퇴할 예정이다. 정년 연 장의 정책 시혜를 받는다 해도 근로소 득 단절로 빈곤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시점에 놓인다. 이미 인구의 13%가 노 인인구로, 2060년이 되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저자는 "'하류노인'이 되는 것은 결코 고령자 본인이나 가족의 잘못 때문이 아

랫동안 모아온 책 만드는 도구들의 사진

책에는 가위, 칼, 자, 천공기, 잉크롤

러, 인쇄 공구 등 33 종류, 289가지 도구

저자는 17년 전 서울 충무로 골목, 폐

업을 준비하던 책 제작소에서 책 만드는

도구를 처음 접한 뒤 지금까지 전국의

책 만드는 현장을 오가며 갖가지 도구를

모았다. 책을 만들어온 사람으로 선배들

의 흔적을 간직한 도구들이 쓸모없는 물

건으로 취급되거나 버려지는 것이 안타

을 모아 놓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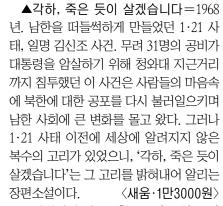
사진이 실려 있다.

니다"면서 "빈곤으로 고통받는 당사자 와 우리는 이 자학적인 빈곤관에서 벗어 나 사회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대안으로 국가가 저소득층 을 위한 새로운 주택정책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빈곤문제에 개입하며, 빈곤・ 격차 문제와 불평등을 시정할 것을 제시 한다. 노인층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시 스템인 사회보장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인층의 빈곤문제 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해당 될 수 있고,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어떻 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려준다.

> 〈청림출판·1만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새로운 두 과학='대화'로 인해 종교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탈리아의 자 연 철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택에 연 금된 채 눈이 멀어가는 와중에 완성한 근 대 물리학의 고전. 대중들에게 물체의 운 동 법칙을 소개하는 최초의 근대 역학 교 과서라 할 수 있다. 갈릴레오의 다양한 과 학 연구 결과, 인간은 불완전한 감각의 한 계를 넘어서 진리의 문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 〈사이언스북스·2만5000원〉



▲먹거리의 리스크학=물의 오염 문제 를 비롯해 환경오염 문제를 다루는 일본 환경리스크학 전문가 나카니시 준코 박사 가 먹거리 문제에 관해 쓴 책. 환경오염은 먹거리의 생산 환경도 오염시켜 결국 먹거 리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먹거리의 안전을 독립적으로 다루어 논할 시대는 아 니며, 리사이클과 먹거리의 안전, 자원과 먹거리의 안전문제라는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푸른길·1만8000원〉

▲지능이란 무엇인가?=컴퓨터가 스 스로 배우고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지능과 어떻게 다



15







른 것일까? 인간이 만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인간만이 가 진 고유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인간의 마음과 지능의 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 답의 단초를 제시하는 책이다. 하워드 가 드너는 당시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 던 단일하고 획일적인 지능의 개념에 반대 하고 인간은 다양한 능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다중지능 이론을 주장했다.

〈사회평론·2만2000원〉

▲사회신용="왜 기본소득이 불황과 공황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경제학적 논리와 철학적 지향을 밝히고 있 어서, 그동안 억눌려온 대안 경제 시스템 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다. 은행 시스템 에 대한 비판, 공공통화의 필요성, 국민배 당을 통한 분배 정의의 실현 등 '사회신용 론'이 지향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들이 모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역사비평사·1만2800원〉

사진으로 보는 책 만드는 도구 33종류 289가지

BOOK TOOLS

김진섭 엮음

일제 강점기 양곡 창고가 문화 공간으 로 변신했다. 전북 완주군 삼례문화예술 촌이다. '한국의 헤이온 와이'를 꿈꾸는 이곳의 중심은 '책'이다. 강원도 영월에 서 옮겨 온 책박물관이 눈길을 끈다.

책 만드는 이 김진섭씨는 '자기 손으 로 만든 책에 자기 이야기를 담아보자' 는 마음으로 이 곳에 '책공방북아트센



터'를 열었 한 권의 책 이 만들어 지기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배울수있

는 '책 예 술학교'를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김 씨가 펴낸 'BOOK TOOLS'는 오 까웠기 때문이다.

"도구의 매력에 빠진 것은 여러 잡지 를 만들면서부터다. 책을 만들 때는 사 람이나 기계는 물론이고 크기는 작아도 없으면 안될 도구도 필요하다. 숱하게 유럽을 오가며 많은 도구를 봤지만 그저 멋지다는 느낌 외에 '내 것'이라는 느낌 이 없었다. 비로소 '내 것'이라는 느낌을 받은 것은 우리 선배들이 사용한 손 때 묻은 도구를 본 뒤였다."

무엇보다 책 판형이 독특하다. A6 판 형, 1216쪽 분량의 책에는 중간 중간 도 구를 설명하는 짧은 글을 실었다. 저자 는 '책 만드는 버스', '책 잘 만드는 책' 등을 출간했다.

〈안그라픽스·2만7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 책

▲칠칠단의 비밀=1999년, 방정환 탄생 100돌을 맞아 출간한 '칠칠단의 비밀'을 개 정판으로 다시 단장했다. 책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쓴 탐정소설의 대표작, 장편 '칠 칠단의 비밀'과 중편 '동생을 찾으러'로 구 성됐다. 두 편 모두 여동생을 납치한 일본 인의 음모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통쾌하고 흥미진진하게 그렸다. 〈사계절·1만원〉

▲낫도깨비 낯도깨비 나도깨비=무조 건 남을 따라 하기보다 나답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세 도깨비를 통해 재미있게 알려준다. 도깨비 마을의 재밌는 풍경과 도깨비들의 먹기 춤, 놀기 춤 등도 흥겹게 그려져 있다. 책을 읽으며 세 도깨비를 통 해 도깨비다움이란 무엇인지, 나다움이란 무엇인지 아이와 함께 생각해보도록 했

〈꿈터·1만2000원〉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실제로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살고 있는 가족 이야 기를 바탕으로 하여 쓴 이야기다. 하지만





단순히 입양되어 온 아이와 피붙이 가족 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과정을 그린 이 야기는 아니다. 지독히 현실적이고 가족이 라는 이름 아래에 놓였다면 그 누구나 공 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단비어린이·1만1000원〉 ▲빨리빨리 나라에서 제일 빠른 할아버 지=빠듯한 하루 일정과 경쟁 속에서 지 친 아이들을 위해 만든 그림책. 할 일이 참 많은 하루하루, 뒤처진다는 것은 너무 창 피한 일이라고 무엇이든지 빨리하라고 하 는 어른들 사이에서 바쁜 하루를 살아가 는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여유와 위로를 전 하고자 한다. 〈리틀씨앤톡·1만원〉

굿모닝타운 2층 상가매맨

넓은 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카페, 미용실, 병원 적합

- 전용 289m² (87평) 2/3 카페인테리어, 1/3 공실
- 매 7억5천만원 (대출 5억) 실 투자 2억5천만원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대출 20억) 실 투자 6억5천만원

무인텔 매매

화순 도곡 온천관광 단지내 최근 올리모델링, 성업중

- 객실 28개 및 내 외부 올 리모델링
- 매 23억 (대출 14억5천) 실 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솔향기맑은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맛의향연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